

 <div>금융위원회</div>	<div>보도자료</div>				
 <div>금융감독원</div>	<div>보도</div>	<div>2020.9.23.(수) 10:30부터</div>	<div>배포</div>	<div>2020.9.23.(수)</div>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02-2100-2850)	담 당 자	김 미 정 사무관(02-2100-2851) 윤 우 근 사무관(02-2100-2852) 박 성 빈 사무관(02-2100-285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02-2100-2830)		이 지 형 사무관(02-2100-2836)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박 민 우(02-2100-2950)		이 종 림 사무관(02-2100-295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02-2100-2650)		장 원 석 사무관(02-2100-265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3145-8020)		노 영 후 팀장(02-3145-8050)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조 성 민(02-3145-8370)		이 민 호 팀장(02-3145-837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02-3145-7580)		민 봉 기 부국장(02-3145-7570)

**제 목 :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진단·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심을 잃지 않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9.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2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9월 분기말 효과 전망, 주식시장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점검해 보는 한편,
- 가계대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기업여신 현황 등 금융산업 현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2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9.23.(수) 10:30 ~ 11:30 / 영상회의
-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금감원)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신용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한은) 금융안정국장
(민간전문가) 자본시장연구원,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방역 및 경제대응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 금융시장내 어떤 **리스크 요인**이 언제 **현재화**할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금융기관과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분기말 효과)**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은 우량채를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어 **유동성 경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 MMF, 비우량채, 외국인투자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시장안정화장치**를 통해 **불안요인 확대**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두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식시장)** K-방역의 성과,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참여에 힘입어 한국증시가 주요국 대비 **높은 주가상승률**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대출**을 통한 투자와 **해외투자 증가**에 대해서는 **무리한 대출이나 충분한 정보**가 전제되지 않은 투자가 갖는 **리스크**를 유념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가계대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가계대출이 최근들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직까지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세가 높은 수준은 아니나,

 - 시장에서 제기되는 **상환능력 심사의 불충분성, 특정자산에 대한 자금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건전성 관리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불안요인 지속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기관 건전성 등)** 금융의 충실한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위해 기초체력, 즉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 정부도 한계기업 및 **코로나19 영향 업종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경제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주요 논의 내용

1. 9월 금융시장 동향 (시장 전문가 논의결과)

- (분기말 효과) 시장전문가들은 분기말에 단기자금을 중심으로 채권 관련 자금의 유출입이 불가피하나, 대체로 지난 3월과 같은 자금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크레딧 스프레드 및 CP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중앙은행의 적극적 지원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 채권시장안정펀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가동 등이 채권시장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
 - 우량등급과 비우량등급간 온도차는 있으나, 시장안정화장치들이 양극화를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주식시장 동향) 3월 중순 이후 한국증시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성공적 방역 외에도 개인투자자들의 유동성 유입이 주가상승의 주요 동력이라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 다만 시장전문가들은 일부 섹터의 과대평가 가능성(내재가치<시장가치), 한계기업 증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동향 (금감원)

- '20.7월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24.6조원, 해외채권 보유잔액은 10.3조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증권사 업무보고서 기준)
 - * 해외주식 잔액은 전년말 대비 107% 증가한 반면, 채권잔액은 전년말 대비 20% 감소
 - '20.7월 순매수액은 해외주식(3.6조원)이 국내주식(3.8조원)에 근접하였으며,
 - * 개인과 일반법인 합산액이며, '20.7월말 잔액기준 개인 비중은 약 77%(예탁결제원)
 - 주로 나스닥 대형 기술주 위주의 개별종목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20년 1~7월 순매수 종목 상위 5개의 83%가 美 나스닥 개별 종목)
- 이러한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증가에는 ①유동성 증가, ②온라인 매매 활성화, ③증권사 마케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향후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정보 접근성의 제약, 환리스크 노출 등 유의사항이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계대출 동향 (금융위)

- '17년도 이후 꾸준히 하락하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과거대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16.4Q) 11.6('17.4Q) 8.1('18.4Q) 5.9('19.4Q) 4.1('20.1Q) 4.6(2Q) 5.2

- 특히, 최근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자금수요·자산시장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계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 (6월) 5.5 < 13.3 (7월) 5.7 < 13.8 (8월) 6.2 < 14.9

- 위기대응 과정에서 신용대출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자산시장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지 미시적 측면에서 점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대출 추세를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4.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기업여신 동향 (금감원)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은행권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 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 은행 주요 건전성 지표('20.6말) : 연체율(0.33%), 부실채권비율(0.71%)

** 저축은행 연체율('20.6말) : 수도권 3.32%, 지방권 5.54% (일부 지역은 10% 상회)

- 증권사, 보험사 등도 지표상으로는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PF 채무보증(증권), 해외 대체투자(보험) 등과 관련하여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등의 잠재 리스크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 기업여신의 상환능력 악화가 금융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동성 및 리스크 대응능력 등을 지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3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64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3.7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②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 9.18일까지 203.4만건, 204.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8만건)-소매업(33.1만건)-도매업(24.3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4.6조원)-도매업(26.6조원)-소매업(14.5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45.6만건, 89.4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7.8만건, 115.4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6만건/104.5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4.7만건/99.3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7~9.18.)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16.4조	14.3조
	10.0조	0.66조 (6,647억원)
②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21.2조	17.2조
	7.9조	6.5조
③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코로나 피해 P-CBO(4.1일~) 	5.0조	7.3조
	6.1조	2.3조
	20.0조	1.3조 (13,141억원)
	11.7조	1.9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7,731건 (628억원)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4,985건 (1,885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38만건	33.1만건	24.3만건	12.3만건	10.4만건
12.3조원	14.5조원	26.6조원	34.6조원	7.5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제조업	숙박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7.1만건	5.5만건	2.7만건	2.2만건	67.8만건
3.9조원	14.3조원	4.9조원	11.3조원	74.9조원

구 분 ¹⁾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4.9만	33.2조	63.6만	39조	548건	534억	108.6만	72.2조
	만기연장	5.3만	28.2조	21.1만	60.3조	2.7만	1조	29.1만	89.4조
보증	신규	37만	17.2조	-	-	-	-	37만	17.2조
	만기연장	28.7만	25.9조	-	-	-	-	28.7만	25.9조
합 계 ²⁾		116만	104.5조	84.7만	99.3조	2.7만	1조	203.4만	204.8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①, ②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